

‘윤달 특수’ 장례업계… ‘윤달 옛말’ 이사업체

장례업계, 이장·화장 예약 급증…영락공원, 운영시간 연장
이사업체, 부동산 침체에 ‘개점휴업’…결혼업계 특수 실종

3년만에 돌아온 윤달(7월 25일~8월 22일)에 지역 장례업계의 일손이 바빠지고 있다.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속설에 따라 지역 장례업계에 화장, 이장 등 예약이 급증하면서 ‘윤달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윤달은 음력 날짜가 실제 계절과 한 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여분의 달을 추가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재액(災厄)이 없어 ‘한 달이 통째로 손 없는 날’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예년과 달리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곳도 생겨나는 등 업계별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2일 나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장묘사 신정숙(여·53)씨는 “이번 윤달 기간 동안 분묘 개장, 화장 수요가 폭증하면서 수 주 전부터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면 예약조차 못 할 정도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이번 윤달을 놓치면 다음 윤달까지는 3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분묘 개장, 화장, 이장 요청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신씨는 오는 7월 말까지도 일정의 90%가 이미 예약돼 있는 상황이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이장 예약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신씨는 “묘 이장은 성불 등 2~3일은 소요되는데 묘 개장만으로도 너무 바쁜 상황”이라며 “평소 윤달

에 관한 미신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가족 어른신의 뜻을 따라 일정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공사장사시설 영락공원도 일부 예약자리가 남아있는 광주 관내 시설을 제외하고 나주·장성·영암 등 관외 지역의 화장 수요는 윤달 첫날부터 대부분 마감된 상태.
영락공원은 윤달 기간 동안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이상 연장키로 했다. 그 결과 개장화장과 일반 화장을 포함한 하루 총 화장 건수는 기존 49건에서 최대 73건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영락공원 관계자는 “윤달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장 유골 화장 예약 문의가 쇄도했다”며 “기존에는 하루 11건 수준으로 유골 화장을 운영해 왔으나,

윤달 기간 동안은 38건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달은 옛말”이라며 웃지 못하는 업계도 있다. 이사업체는 최근 이어진 부동산 침체에 인건비도 오르면서 “마이너스가 안나면 다행”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과거 윤달에 이사 수요가 부쩍 늘었던 것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30년째 포장이사를 하고 있는 신대중(60)씨는 “집도 안 팔리고 윤달도 옛날에나 잘됐지 요즘은 이윤이 안 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업계의 80%는 다 폐업하기 직전이라고 울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이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일철(70)씨도 “윤달이라고 달라진 것도 없다. 경기가 많이 죽어서 이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특히 개인 업체들은 더 힘들다”고 말했다.

결혼업계도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로 전통보다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면서, 윤달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됐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광주지역에서 15년째 웨딩컨설팅을 운영 중인 오경진(47)씨는 “예전에는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 사주를 보고, 손 없는 날이나 윤달을 골라서 식날짜를 잡는 고객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자녀가 먼저 결혼 날짜를 정한 뒤 부모에게 알리는 등 문묘 자체가 달라져 윤달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윤달에 수의(壽衣)를 장만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속설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의를 제작하는 시기로 여겨졌으나, 수의 제작 업계 또한 트렌드 변화와 수요 감소, 인력 부족 등으로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 특수학교 힘겨운 등·하교 ‘달라진 게 없다’

- ☑ 통학시간 편도 2시간
 - ☑ 리프트 없는 통학버스
 - ☑ 학교·도교육청 예산 핑계
- 여전히 힘들기만한 통학 현실
교육청 “다양한 방안 협의 중”



전남 지역 특수학교에 다니는 B군은 통학 버스에 리프트가 없어 여전히 버스 기사가 들어올려야 버스에 탈 수 있다.

전남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편도 2시간 넘는 열악한 통학 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것으로 드러난(광주일보 4월 21일 6면·22일 7면·24일 7면 등) 지 난 달여가 지났지만,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힘든 통학 현실에 놓여 있었다.
2일 오전 6시 40분께 다시 만난 특수학교 학생 A(15·지적장애·중학교 3년)군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가혹했다.
A군이 탄 통학버스를 따라가 보니 통학 시간은 여전히 2시간 이상 걸렸다. 비슷한 처지의 학생 30여명을 태우는 등 버스 탑승 인원도 그대로였다. 물 먹는 것도 자제하고 버스에 탄 학생들은 좁은 버스에서 2시간을 가만히 앉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오전 8시 50분께 시·군을 왔다갔다하며 학생들을 태운 통학 버스 4대가 차례로 학교에 도착한 시간도 변한 건 없었다.
A군 어머니는 “등하교 왕복 시간이 여전히 4시간 넘게 걸린다. 학교측에서 따로 노선을 조정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내년에 학교 직영 버스 한 대를 폐차시키고 입차 버스로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결국 차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 탑승 시간, 노선은 똑같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차량에 리프트가 없어 버스 기사와 학부모가 들어 올려야 했던 초등학교생 B(뇌병변 장애)군의 등굣길도 변화가 없었다. 버스 운전기사가 B군을 직접 들어안아 버스에 앉히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당장 통학버스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생들은 기약 없이 리프트 시설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핑계로 서로의 등을 떠밀고 있는 모습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학교는 예산이 없으니 도교육청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우선 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 측은 “기사가 보도된 이후 도교육청에서 차량 현황과 학생 통학 문제 등 실태를 조사했다”며 “노선 변경은 차량이 늘지 않는 한 당장 어

려운 실정이지만 에듀택시 문제 등 여러 지점들을 교육청과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중이기에 당장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지금 이뤄지는 단계가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고 응답을 피했다.
또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학교별 통학 차량 운영을 지역과 입차 비율을 50대 50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통학차량 운영 효율화 방안 따라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무안군 옛 일로초 죽산분교장 부지에 전남 서부권 공립특수학교 ‘온미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온미래학교는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될 예정이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 바다, 올 여름도 ‘열탕’

수괴원 “평년 대비 1.0도 높을 듯”

올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고수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학원(이하 수괴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우리 바다 수온 전망’을 발표했다.
수괴원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남해와 서해의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표층 수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값)보다 1.0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동·서·남해 연안해역의 평년 수온은 6~8월 기준 23.8도, 7~9월 기준 24.9도이며, 올 여름에는 6~8월 24.8도, 7~9월 25.9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괴원은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이 크게 확장하

면서 폭염이 이어지는 데 따라 특히 수심이 얇은 서·남해를 중심으로 수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수괴원은 7월 중순경부터 고수온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고수온 특보는 2023년 7월 28일부터 57일 동안 이어졌으며, 지난해에는 7월 24일부터 71일 동안 이어지는 등 더 빨라지고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괴원 관계자는 “여름철 고수온 발생 시기와 지속 기간은 장마전선의 소멸 시점, 태풍 발생, 고기압 세력의 확장 양상 및 해류 변동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며 “여업 현장에서는 수온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수온에 대비해 장비를 확보하거나 사육밀도를 조절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코로나 백신 접종하세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질병관리청이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한 데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반드시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다.
질병청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행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NB.1.8.1은 JN.1의 하위 계열로 우리나라 접종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 4주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속히 백신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
/연필뉴스

대통령 선거날 한낮 더위 주춤

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새벽까지 비가 오면서 오후에는 한낮 더위가 주춤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새벽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을 영향을 받아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그쳐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2일 밝혔다. 3일 아침최저기온은 14~17도, 낮 최고 기온은 22~26에 분포해 당분간 평년(최저 13~17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겠다. 전남서해안과 일부 전남내륙 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송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한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